東亜日報

1971.11.22.

"韓·日協定 체결될 때 千달러씩 받고 숨겨"

徵用희생遺族들支拂요구

치된 시내동區초량洞 금수사에 유족十여명이 들려와 「경부는 지난六五년 한일회담때 희생자 一인당 一千달러씩의 보상금을 일본측으로부터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 보상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二十일 이들의 유골을 쓰山까지 호송해온 鄭琪永씨(三一·부산영원이사장)는 이날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지신도 지난十월七일 일본후생성차관 「하시모드」씨로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될때 대일청구권자금 무상三億달러안에 한국인전들자 二萬一千九百十九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一인당 一千달러씩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駐韓日大使가 弔慰金 遺骨一位에 一萬원씩

【釜山】二十一일 「가나야마」주한일본대사는 지난二十일 「페리」호편으로 환국한 태평양전쟁의 희생자 二百四十六위의 유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유골一위당 一萬원씩의 조위금을 유족회에 보내왔다。

이 조위금은 「가나야마」씨가 개인자격으로 유족회에 보낸것이다。

【釜山】二十一일 태평양전쟁의 희생자유골 二百四十六위가 안

二十一日、太平洋戦争の犠牲者の遺骨二四六柱が安置された金水寺に遺族十数名が集まり「政府は六五年日韓会談の際、犠牲者一人当り一千ドルの補償金を日本側からもらいながらこれを隠してきた」と主張し、補償金を即刻支払えと要求した。

鄭琪永氏はこの主張が妥当であると語り、去る十月六日日本厚生省橋本次官が日韓協定締結の際、対日請求権資金無償三億ドルの中に韓国人戦没者二万一九十九名に対する補償金として一人当り一千ドルが含まれている ことを確認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